



◊남해 보리암은 망대(望臺)라 부르는 금산 정상상의 바로 아래 암벽 기슭에 터를 잡았다.

길 끝에 바닷가...또 눈부신 절이

깊은 산 깊은 골에서 천년의 역사를 보듬어온 절을 우리는 산사(山寺)라 부른다. 그렇다면 천년의 바람, 바다 내음 가득한 바다를 품에 안은 절은 어떻게 불러야 할까? 분별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그 또한 절집에 다르

아니나. 최근 나온 <바닷가에 절이 있었네>는 한번쯤 가보고 싶은 바닷가 절 12곳의 이야기를 재

미있게 펼쳐냈다. 단순한 여행서가 아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각종 르포와 여행기를 써 온 저자 박원식이 매월 발품을 팔아가며 공을 들인 끝에 얻은 수확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절의 역사와 그에 얽힌 이야기에서부터, 눈여겨 볼만한 문화재, 가는 길을 개인적 경험과 감상을 곁들여 독특한 필치로 소개한 에세이집이다.

“길의 끝에서 바다를 만나고, 절을

‘바닷가에 절이 있었네’

글 박원식 / 사진 이한구
고요아침 / 9천5백원

가볼만한 절 12곳 이야기 ‘발품’으로 채집 수려한 사찰풍광·아름다운 문화재 함께

만났다. 파도처럼 들이치는 절의 풍광에 눈이 부시고, 바닷가 고찰의 향취에 세운이 돌아나는 듯 했다”는 저자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바닷가에 있는 절은 그 자체로 충분히 매력적이다. 밤이면 달이 뜨고 바닷물 위로 달빛이 흐르는 서산 간월암에서부터 붉디 붉은 서해의 노을이 아름다운 강화 보문사, 수천 수만 마리 겨울새가 머무는 동해 감추사, 봄이면 동백꽃이 눈부신

강진 백련사, 바다가 마치 연꽃 방죽처럼 아득하게 펼쳐진 남해 보리암에 이르기까지 파도 소리가 있고, 고동 소리가 있는 바닷가 절을 이야기 한다. 여기에 사진가 이한구 씨(월간 <사람과 산> 사진부 팀장)가 담아낸 풍광이 우리의 마음을 한층 더 유롭게 만든다. 천년의 세월을 견뎌낸 바랜 단청과 귀퉁이가 닳아버린 석탑, 아름드리 벚나무와 조화를 이룬 종각 등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도 다른 시각에서 만날 수 있다. 책 제목에서 풍기는 뉘앙스처럼 바닷가에 절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었다면, 또 복잡한 일상과 스트레스로 지쳐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우리 몸과 마음에 휴식을 제공해 줄 바닷가 절로 떠나보자. 넓고 푸른 바다가 보이는 바닷가 절로.

이은자 기자 ejlee@buddhan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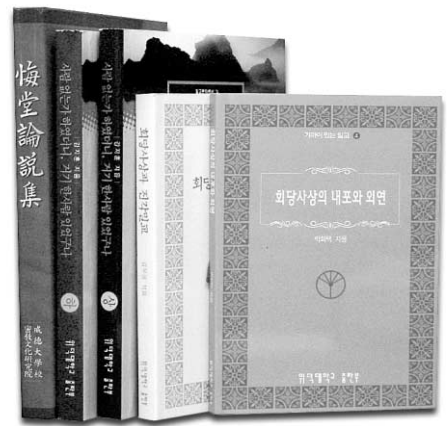
회당 대종사 기념 저작물 5권

진각종 ‘종조 탄생 1백주년 기념의 해’ 회향

진각종 창종주 회당 손규상 대종사(1902~1963)를 기념하는 저작물 5종이 발간됐다.

2002년 회당대종사 탄생 백주년을 회향하면서 위덕대 출판부가 종단과 대학의 지원으로 펴낸 기념저작물은, 회당대종사의 일대기를 2권의 전기소설로 재구성한 <사람없는가 하였더니, 거기 한사람 있었구나>와 <회당논설

집>, 회당의 생애와 사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회당사상과 진각밀교>, <회당사상의 내포와 외연> 등이다. 이 가운데 회당대종사의 일대기를 전기소설화한 <사람없는가 하였더니, 거기 한사람 있었구나>는 불교소설가인 강지훈씨의 노작이다. 강지훈씨는 이 소



설을 마지막 작품으로 타계하여 유작이 되었다.

17년간 승속 오가며 겪은 구도기

‘김정빈의 마음공부’

김정빈 지음
도솔 / 8천9백원



미얀마로 떠났다. 미얀마 ‘참미에’ 수도원에서 우 지나카 선사로부터 직접 명상 지도를 받은 그는 미얀마에서 돌아온 후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명상법을 강의했다. 또한 ‘현실에 굳건하게 뿌리내린 명상’을 깨닫기 위해 농부로서 벼농사를 짓기도 했다.

책에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아버지로서 승속(僧俗)을 오가며 겪었던 고민과 깨달음, 작가지자 농부로서 살아가는 이야기 등 17년간의 인생역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 출가와 무소유, 공(空)생활, 명상 수행에서의 단계별 체험 등 자신의 ‘마음공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간의 삶과 활동에 대한 종교의

“별 보지만 땅 딛은 현실 잊지 말아야”

80년대 베스트셀러 <단>의 작가 김정빈 씨가 17년간의 구도기를 담은 <김정빈의 마음공부>를 펴냈다.

1985년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을 만나 불교에 귀의한 지은이는 89년 위빠사나 명상법을 접한 후 인도, 네팔 등을 순례하고 명상법을 배우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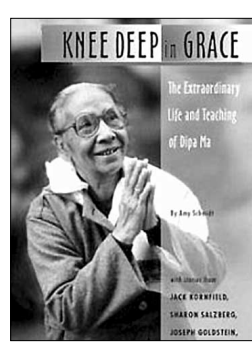
우월을 믿던 ‘종교 절대주의자’에서 ‘인문주의자’로 복귀해 제3기의 길을 걷고 있다”는 지은이는 “우리는 별을 바라보고 걸지만 동시에 땅을 딛고 서 있는 현실인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nia.com



스승 디파 마의 가르침

<스승 디파 마의 가르침(Knee Deep In Grace: The Extraordinary Life and Teaching of Dipa Ma)>은 주부들의 성자로 불리고 있는 디파 마 바루아(Dipa Ma Barua)의 삶과 가르침을 담은 책이다.



얼마 뒤인 70년대 초에 유명한 위빠사나 법사인 조셉 골드스타인과 사른 살즈버그가 그녀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이미 남방불교를 전하는 스승으로서 인도 캘커타에서 자신의 딸에게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저자인 에미 슈미트(Amy Schmidt)는 디파마를 어머니이자 주부로서 견처를 얻은 여성 수행자의 보기도문 표본으로 묘사하고 있다. 수행을 못하게 하던 남편이 죽은 후 마침내 위빠사나 명상을 하기 시작한 디파마는 미얀마의 마하시 스님의 지도아래 빠른 성취를 얻는다.

이 책은 디파마가 미국을 두 번 방문했을 때 저자가 접한 가르침과 일화를 중심으로 엮여졌다. 지은이는 디파마의 가르침을 통해 “붓다의 길은 바로 지금 이 삶속에서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Present Perfect Books사 펴냄. 김재경 기자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 (02)737-0695

출판가 소식



‘법회와 설법’ 1월호 나와

조계종 포교원에서 발간하는 <법회와 설법> 1월호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신행지도 교안 ‘결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교리신행법문 ‘보시, 넉넉한 세상의 기초’, 어린이법문 ‘새해에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담았다. 특히 이번 호부터 1년간 ‘경전법문’으로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스님이 <금강경>을 강설한다.(02)720-7064



‘아름다운 발우공양’ 발간

정토회 신하 사단법인 한국불교환경교육원에서 생명이야기 첫 번째권 <소심경에 깃든 아름다운 발우공양>을 펴냈다.

쌀 한톨, 물 한방울에도 천지만물의 노고가 스며 있음을 알고, 쌀과 물이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있다는 연관관계를 설명하는 책이다.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과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원장 유수스님, 밀양대 환경공학과 이병인 교수, 국립환경연구원 최훈근 박사의 발우공양과 생태적 삶에 대한 글과, 정토회에서 진행해온 쓰레기제로운동의 체험담이 담겨있다.(02)587-8997



공부·메모하는 다이어리

지혜의 나무 출판사에서 ‘2003년 불교 다이어리’를 선보였다.

불교 다이어리는 달력 양식을 차용해 월별·일별 주요 일정을 기록할 수 있게 했으며, 특히 각 쪽마다 불교 용어와 핵심적인 가르침에 대한 설명을 담아 놓아 다이어리를 펼칠 때마다 읽어보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했다. 예불문과 반야심경, 신묘장구대다라니 등 불교의식문과 불교관련 종단 단체 사찰의 주소록도 수록했다.(지혜의 나무, 7천원)



랑승만 시인 시집 펴내

반신불수의 몸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시작에 몰두해 온 랑승만 시인(70)이 자신의 시 세계와 지난 삶을 담은 시집 <달빛 젖어 천강으로 흘러간 꽃에 관한 기억>을 발간했다.(자료원, 1만원)

금주의 베스트북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감산자전	감산 스님	여시아문
2	서장공부	김태완	여시아문
3	한영불교사전	서광 스님	불광출판부
4	화	틱 낫	명진출판사
5	역사속의 한국불교	이이화	역사비평사
6	스승을 찾아서	법정 스님	동쪽나라
7	아비담마길라잡이	각목·대림 스님	초기불전연구원
8	평화로움	틱 낫	한얼림원
9	아름다운 우리말 경전 금강경	우룡 스님	효림
10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 낫	한김영사

도서 안내: (02)737-0695